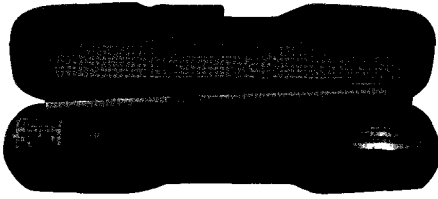


심한 저혈당 치료를 위한 글루카곤, 이것이 궁금하다?

권은경 / 삼성서울병원 소아당뇨클리닉 간호사



글루카곤 주사약의 실제 모습이 궁금해요.



예전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글루카곤 응급킷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모두 외국계 회사인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회사의 제품이었으나 현재 수요가 맞지 않아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루카곤 응급킷 사용에 대해서는 영화 “패닉룸”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글루카곤은 옆의 사진과 같습니다. 위의 응급킷처럼 사용하기 편하게 세트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어 안경통을 이용하여 약과 함께 주사기, 알코올 솜 등을 세트로 보

관하는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사약 상자에는 주사용수 1cc가 든 바이알과 1mg의 글루카곤이 들어 있는 동결 건조된 백색분말이 든 바이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사방법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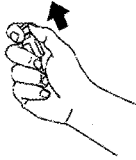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경우 정맥주사는 위험하므로 피하주사나 근육주사를 선택합니다.

근육주사가 피하주사 보다 흡수속도가 빠르므로 가능하다면 근육주사를 선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육용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육용 주사기의 긴 바늘을 보고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보다 2배 이상) 너무 놀라 두려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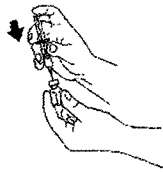
응급상황 일 때 더 당황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상시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되 1cc를 담을 수 있는 100단위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주사부위로는 팔의 외측상부, 엉덩이, 허벅지 등이 해당됩니다. 인슐린주사법과 큰 차

이는 없지만 굳이 살을 집어 올릴 필요는 없으며 주사후 알코올 솜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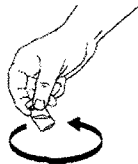
① 약이 든 병과 증류수가 든 병의 뚜껑을 벗기고 알코올 솜으로 고무부위를 닦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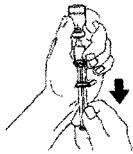
② 00단위 주사기의 바늘을 증류수병 안으로 넣어 1cc의 증류수를 모두 뽑니다. 그 다음 약이 든 병안으로 바늘을 넣어 주사기의 증류수를 전부 집어 넣습니다.



③ 부드럽게 병을 돌려서 완전히 글루카곤을 녹입니다. 용액이 깨끗한 물처럼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④ 병을 거꾸로 들고 바늘이 용액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약을 뽑니다.



주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성인은 1mg 즉, 1cc의 주사용수를 녹여서 녹인 양 모두 주사하고 20kg 미만인 어린이의 경우 성인용량의 반인 0.5mg 즉, 0.5cc(50단위)선까지 약을 재어 주사합니다. 사용당시 용액은 반드시 물과 같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버리며 혼합 후에는 즉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글루카곤의 과용량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깨서 삼킬 수 있게 되면 곧 먹이세요. 보통 부드러운 주스나 과일주스와 같이 흡수가 빠른 당분을 환자에게 주세요. 그런 다음 크래커나 치즈 또는 샌드위치 같이 지속성 당분을 주세요. 만약에 환자가 15분안으로 깨지 않고 혈당이 여전히 낮다면 글루카곤을 다시 줄 수 있으며 가능한 즉시 119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하여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글루카곤을 사용해서 환자가 깨어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밖에 주의사항은요?

의식이 없는 환자가 깨어날 때 구토를 할 수 있으므로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글루카곤의 부작용은 없나요?

심한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가끔 오심, 구토가 있을 수 있고 몇몇 사람은 글루카곤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잠시 빠른 심장박동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위 반응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글루카곤의 보관방법은?

실온(25°C이하)에 보관하세요. 단, 습하거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유효기간을 기록해 놓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방을 받아서 새 약으로 교체해 놓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